

장자의 전인교육관

이원도*

요약

본 연구는 장자의 지인(至人)이라는 개념을 인용하면서 마음수련의 의미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마음수련회가 역사적으로는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날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수련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수련회를 찾고 있을까. ‘장자를 읽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라고 했다.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운택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수련회를 찾는 것은 인간이 미완성이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자』에서는 전인(全人)을 지인(至人)으로 부른다. 지인은 완성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도를 의미한다.

예컨대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일이란 인간이 존재한다는 이유가 될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말과 뜻을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일을 하되 일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서도 한다는 ‘나’마저도 없는 소위 말하는 무위자연의 경지 즉 도의 경지에서 일을 향유할 수 있는 가르침을 『장자』 편을 예시하면서 부연하고자 한다.

주제어: 전인교육, 지인, 도, 무위자연, 장자(Chuang Tzu)

* 경남 밀양 출생, 문학박사, 시인, 평론가. 저서; 시집 『출발선 달을 향한』 『구름 사유사』 평론서 『이상이 만난 장자』 외.

I. 서론

《장자》에서는 전인(全人)을 지인(至人)으로 쓰고 있다. 전인이란 말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함이라 함은 완전히 자기가 없는 사람이다. 전인은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누구보다도 한 차원 높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 있되 살고 있지 않고, 숨은 쉬되 있지 않는 사람의 경지가 전인의 경지이다.

“전인은 걸림이 없고, 전인은 막힘이 없고, 전인은 고통이 없고, 전인은 희비가 없고, 전인은 천지만상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어 세상일을 하는 순리를 아는 사람이 전인이다.”¹⁾라고 했다.

한편 “도(道)로서 사물을 보면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없으나, 물(物)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귀하다고 하고 상대방을 천하다고 한다.”²⁾ 여기서 《장자》의 관점주의를 경험적·사변적·형이상학적 관점의 세 단계로 고찰한 유창원³⁾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경험적 관점주의란 경험 중에 나타나는 인지와 가치판단의 유효성이 절대적, 보편적이 아니고 언제나 일정한 관점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예컨대 모장(毛嫱)과 여희(麗姬)가 인간의 눈에는 미인이지만 물고기나 새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으며, 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지만 그것을 길게 이어주면 괴로워하고, 학의 다리는 길지만 그것을 짧게 잘라 주면 슬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절대적 가치 표준이 모든 사물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데 초

1) 우 명, 『지혜의 서』 참출판사(2006), p.64. 참조.

2) 以道觀之. 物无貴賤. 以物觀之. 自貴而相賤. 〈秋水〉.

3) 줄고, 『이상야 만난 장자』 서정시학(2007), p.75~77. (劉昌元, 『莊子的 觀點主義』, 『道家文化研究』 제6집, 上海古籍出版社, 105쪽(1995) 재인용.

점을 맞추고 있다.

분리되어 있는 물성(物性)을 억지로 동일하게 끼워 맞추면 반드시 잔생상성(殘生傷性)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험적 관점주의는 물성상대주의(物性相對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험적 관점주의를 제시할 때 장자의 주요 목적은 일체의 지식과 가치의 객관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이 모두 일정한 관점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심령의 개방과 초월, 그리고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변적 관점주의는 추상적 사유의 입장에서부터 제출된 일종의 상대주의이며 그 내용은 ‘이것’과 ‘저것’이 서로 대대(待對)관계 속에 상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론도 모두 승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점주의를 제시하는 장자의 생각 역시 하나의 상대적 관점일 수 있다. 그래서 장자의 인식론을 철저히 상대주의로 파악하는 연구에서는 《장자》의 상대주의에서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것은 《장자》가 의도하고 있는 논의의 대부분은 불가지론적 논증이다. 그리하여 상대주의를 인식론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절대 회의론이나 불가지론적이며, 이로 인해 회의론에 빠지게 되어 주관주의로 흐르게 된다는 우려를 낳게 된다.

한편, 형이상학적 관점은 상대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대자연에 비추어 보는 특성을 갖고 있다. 대자연의 관점은 부분에 얽매이는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부분을 넘어서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관점주의는 대립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절대주의요, 신비주의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주의나 관점주의가 전제될 때 그 속에 어떠한 절대도 오히려 상대주의를 강화시킬 뿐이다.

상대주의나 관점주의가 가진 자기 모순적 난점을 해소하는 길은 모순과 역설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급함이 앞선다기보다는 그 자체에 논리적이고 존재론적인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길이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동일성의 사유에서 개체를 인정함으로써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장자》에서 시도하고 있는 생활 속의 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직장인으로서의 도

나비가 꿀을 나르듯 새가 먹이를 잡듯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이다. 사람에게 있어 일이란 인격이요 생명인 것이다. 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은 일로부터 출발해서 일로부터 영원히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리석어 마치 도를 도에서 구하려 하기 때문에 도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일을 일속에서 구하려 하기 때문에 일에 걸리게 되는 우를 범하기 일췌다. 앞서 밝혔듯이 도는 논리적이고 존재론적인 적극적 의의를 부여하고 개체를 인정함으로써 크게 하나[太一] 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자의 우화 중 가장 두드러진 〈포정해우〉에서는 ‘무대(無待)의 마음’ 또는 ‘소통’의 중요성을 신(神)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문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포정이라는 훌륭한 요리사가 문혜군을 위하여 소를 잡았다. 손을 갖다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을 디디고, 무릎을 굽히며 소를 잡을 때, 그 소리는 설컹설컹, 칼 쓰는 대로 설뚝설뚝, 완벽한 음률은 상림(桑

林)에 맞춰 춤추는 것 같고, 경수(經首)에 맞춰 율동하는 것 같다. 문혜군이 말했다. “참, 훌륭하다.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포정은 칼을 내려놓고 답했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도입니다. 기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삼 년이 지나자 온전한 소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음(神)으로 만날 뿐, 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은 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늘이 낸 결을 따라 큰 틈바귀에 칼을 밀어 넣고, 큰 구멍에 칼을 댁니다. 이렇게 정말 본래의 모습을 따를 뿐, 아직 인대나 건(腱)을 베어본 적 없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해마다 칼을 바꿉니다. 이는 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요리사는 달마다 칼을 바꿉니다.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19년 동안 이 칼로 소를 수천 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칼날은 막 숫돌에 갈아 나온 것 같습니다.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이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 없는 칼날이 틈이 있는 뼈마디로 들어가니 텅 빈 것처럼 넣어, 칼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9년이 지났는데도 칼날이 지금 막 숫돌에 갈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육과 뼈가 닿은 곳에 이를 때마다 저는 다루기 어려움을 알고 두려워 조심합니다. 시선은 하는 일에만 멈추고, 움직임은 느려 집니다. 칼을 극히 미묘하게 놀리면 뼈와 살이 특하고 갈라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와 같습니다.⁴⁾

4) 庖丁爲文惠君解牛. 手之所觸. 肩之所倚. 足之所履. 膝之所踣. 砉然騞然 奏刀騞然. 莫不中音. 合於桑林之舞. 乃中經首之會.(...) 每至於足. 吾見其難位. 怵然爲戒. 視爲止. 行爲遲. 動刀甚微. 謦然已解. 如土委地. (...) <養生主>.

문혜군(왕)과 요리사와의 대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자에게 있어 도는 본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귀천이 있을 수 없다. 본성(본래, 본바닥, 시원, 주제자 등으로 씀)의 입장에서 본성을 말하기에 문혜왕과 포정 사이에는 정신의 세계는 차치하고라도 물(物)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관점의 이질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한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것에 기대어 자신의 마음을 기른다(託不得已養中)”는 부득이의 논리를 일컬음이다.

문혜왕이 포정의 소 잡는 솜씨를 보고 감탄한 나머지 칭찬을 하자 포정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뛰어난 ‘도’라고 응대한다.

여기에서 포정이 말하는 도는 본질을 의미하는 본질주의적으로 이해되는 도나 정신적 자유를 의미하는 주관주의적으로 이해되는 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능숙한 백정은 숙련된 기술 따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이상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음을 비추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이란 무엇인가? 포정의 말을 들어보자. “비록 제가 소통을 한다고 해도 저는 매번 살과 뼈가 엉켜 있는 부위에 이르러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소를 19년 동안 잡으면서 익혔던 기술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지점, 즉 부득이(不得已)한 지점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포정은 스스로 술회한다.

포정은 소를 잡되 감관을 수반한 마음이 상용하는 칼날을 다쳐가면서 소를 잡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컨대 돌산의 큰 돌도 석공이 짙은 돌의 맥에 징을 놓는 순간 이물 없이 갈라지는 것이 이치고 순리다. 보통 백정들이 하루건너 칼갈이를 하지만 포정의 칼은 19년을 써도 칼날이 무디어 지지 않는 소위 말하는 전인의 경지를 진술하고 있다.

포정이 기술한 종합적인 내용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소를 대하면서 소

만 봤고, 삼년이 지나자 전체 소가 아닌 분해된 소를 볼 수 있었으며 지금은 소를 대할 때 그 소와 '신으로 조우' 하지 감관을 수반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전인이란 인용문에서도 밝혔지만 도의 관점에서 일을 하되 일에 걸리지 않는 신으로 조우함으로써 잔생상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Ⅲ. 넓은 의식의 직업관

앞서 <포정해우>에서 봤듯이 포정은 비록 소를 잡는 천민의 신분이지만 그의 직업의식은 이미 도의 경지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포정의 직업관에 대한 의식 확장은 어떻게 확장되었을까, 사람이 의식이 작으면 일의 지엽에 매달려 급급하기 마련이다. 의식이 크다는 것은 사물로부터 거리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북녘 바다에 물고기가 살았는데 그 이름이 곤(鯨)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봉(鵬)이라 한다. 봉의 등 넓이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 가득히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대풍이 일면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한다. 그 바다는 천지다.⁵⁾

5) 北冥有魚. 其名爲鯨. 鯨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海. 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 <逍遙遊>.

〈소요유(逍遙遊)〉는 ‘대봉(大鵬) 이야기’라는 환상적인 우화로 초탈을 통한 의식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것만이 포정의 직업의식을 실천적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속에서 멀리 떨어져 관조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 것이다. 이는 장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를 주장하는 심미적 이해가 깔려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한편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면, ‘대봉 이야기’는 관조적인 심미적 자유를 구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대의 마음’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이는 ‘유대(有待)의 마음’을 각고의 수련을 통하여 해체하지 않으면 무대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인용문에 의하면 큰 물고기(鯢)가 큰 새(鵬)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곤의 크기는 이미 세상의 일부가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안주해도 될 텐데 왜, 또다시 봉이 되어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야 하는가,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 물고기를 곤으로 키워, 다시 그 곤을 등 넓이가 수천리가 넘는 크기의 봉으로 키워서 한번 날개를 저으면 구만리장천을 날게 하는가. 새가 날려면 반드시 대풍(大風)을 필요로 했으며 그 바람의 힘을 빌려야 남명바다에 이르게 된다. 남명바다란 천지(天池)를 일컬음이다. 여기에서 곤이 봉으로 다시 나는 것은 필연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미지(未知)에서 이지(已知)까지의 변화를 추구하는 의식 확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마음수련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 역시 나만의 관념이나 정신 속에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자유라고 한다면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해도, 그런 자유는 타자와의 진정한

소통이 없는 한 타자와의 충돌로 인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인용문의 허황되다시피 한 이야기는 키우고 키움으로써 타자와의 소통을 위해 끝없는 의식 확장을 넓혀가고 있는 과정을 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직업을 통한 진정한 자유와 초월의 경지를 암묵적으로 역설하고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IV. 하나 된 주인의식

장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호접몽>에서는 장자와 나비는 둘이 아닌 하나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언젠가 장주(莊周)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채 유쾌하게 즐기면서도 자기가 莊周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문득 깨어나 보니 틀림없는 莊周가 아닌가. 도대체 莊周가 꿈에 나비가 되었을까? 아니면 나비가 꿈에 莊周가 된 것일까? 莊周와 나비 사이에는 겉보기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적인 변화는 없다. 이러한 변화를 物化라고 한다.⁶⁾

장주(莊周)와 나비 사이에는 분별과 차이가 무화되고 있다. 장주가 곧 나비이고 나비가 곧 장주인 경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이 관념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적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

6) 昔者, 莊周夢爲蝴蝶, 栩栩然蝴蝶也, 自喻適志與, 不知周也, 俄然覺, 則蘧蘧然周也, 不知周之夢爲蝴蝶也, 蝴蝶之夢爲周與, 周與蝴蝶, 則必有分矣, 此之爲物化. 《齊物論》.

이 하나인 생사일여(生死一如)의 세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에서 물화란 물(物)의 변화를 의미하며, 나비와 장주의 관계에서 인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피상적인 분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차이는 있어도 절대적인 변화가 없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주가 나비이고 나비가 장주인 경지가 강조되는 세계이다. 다름이 없는 경지, 차별이 없는 세계, 이것이 장자가 그려내고자 하는 유토피어[太一]가 아니겠는가. 태일(太一)이란 참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라는 마음이 없어야 진정한 참이 될 수 있다. 참인 진리의 본래 마음으로 되돌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가 될 것이다. 모두가 하나인 마음이라 변하지도 않고 지혜 자체가 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살기에 너와 나가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할 것이며 완전한 대안이 있어 그 대안에 살 것이며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 것이다.⁷⁾

모든 사람이 참의 정신 자체로 태어난다면 일의 주종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작게는 내가 주인이고 크게는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의 관점에서 일을 대하면 노와 사의 대립에 묶일 여지가 없다.

V. 나오면서

지금까지 장자의 진술을 토대로 전인의 직업의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모두에서 열거했지만 관점주의와 상대주의를 접목함으로써 그 둘이

7) 우 명, 『하늘이 낸 세상구원의 공식』, 참출판사, 2005.

갖고 있는 모순과 역설을 조화롭게 승화시켜 그들에게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인정함으로써 동일성의 사유에서 벗어나 개체를 인정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자유롭게 초월할 수 있는 전기 마련이 되었다고 본다.

첫째, 〈포정해우〉에서의 소통 역량은 소를 잡는 기술로서 소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無待)의 마음이 타자와 조우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고유한 역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소통의 조건은 나의 마음이 타자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내가 타자의 타자성과 조우해서 자신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어떤 일에 있어서 유대(有待)의 마음이 앞서면 소통은 와해된다고 할 것이다. 장자의 ‘단독자’는 이런 유대와 무대의 통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즉 무엇을 기대하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보다 있는 마음에서 없는 마음으로 일에 임함으로 일의 자족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자는 일을 하되 일에 걸리지 않는 소통의 마음을 신(神)이라는 개념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

둘째, 〈소요유〉를 통하여 의식 확장을 권유하고 있다. 크고 넓은 의식이란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식이 크다는 것은 마치 강물이 개울물을 밀쳐내지 않듯 바다가 강물을 품듯 자기를 낮추고 낮고 죽은 자기를 세상 속에 투신함으로 안분과 자족의 정신을 향유할 것이다.

셋째, 장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호접몽〉을 통해서 이것과 저것의分別이 없고, 길고 짧고, 있고 없음에서 벗어나 크게 하나 되는 태일(太一)의 정신을 읽을 수 있었다. 뒤집어 말하면 태일이란 크게 하나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일터에서 주인과 사원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함은 일의 분쟁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타자적 관점이랄 수 있는 상대주의 관점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은 하나 된 마음에 서려야 만이 일어나는 화해(和諧)이다.

【참고문헌】

- 강신주(2004), 장자의 철학, 태학사.
안동립(1993), 장자, 현암사.
왕사오농(2007), 장자 우화를 말하다.
우 명(2008), 진짜가 되는 곳이 진짜다, 참출판사.
이원도(2007), 이상이 만난 장자, 서정시학.

Chuang Tzu's View of Education for Human Completion

Lee Won-do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ntroduce the meaning of Maum Meditation through citing Ji-In(至人一; a person who attains completedness) in Chuang Tzu. As already known, although Maum Meditation has a rather short history, it has gained popularity more and more with years so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practiced this meditation has been increased exponentially.

Why do many people come to Maum Meditation? It is said the age when Chuang Tzu is read by many people is the age of unhappiness. Although the current civilization is highly advanced and Korea joined the developed nations so we live an affluent life, a multitude of people participate to Maum Meditation. It is because man is incomplete. In Chuang Tzu, Ji-In is what we call the complete man and it means Truth. I will quote the chapters of 'Chuang Tzu' to explain the stage of Truth when people can really enjoy their work.

For your reference, let's think about work. Work has the existential reason for which man can exist. In other words, if one does not work, he can be considered as lifeless being.

I will try to manifest and explain 'The State Of Letting Nature Be(無爲自然境地)' which means although man works, he is not bound by that work and also his self does not exist in his work.

Key words: education for human completion, Ji-In, truth, letting nature be, Chuang Tzu

■ 성명: 이원도

주소: (612-020)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34 선프라자 1019호

전화: 051-472-8263, 010-9998-0287

전자우편: weondo2@hanmail.net